

수입기자재 수요 급감, 국산기자재로 방향전환 움직임.

□ 취재/김동진 기자

외 환 위기가 몰아닥치기 이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양계업계는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아래 양계단지 등 대규모 농장들을 신설하는데 주력을 해올 정도로 급성장(?)을 해왔다.

그 결과 시설자동화로 생산비 절감에 따른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으나 과잉생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었고 이에따른 여파로 채란계 분야에서는 후장기 성행, 다운폭 증가 등 유통의 불합리만을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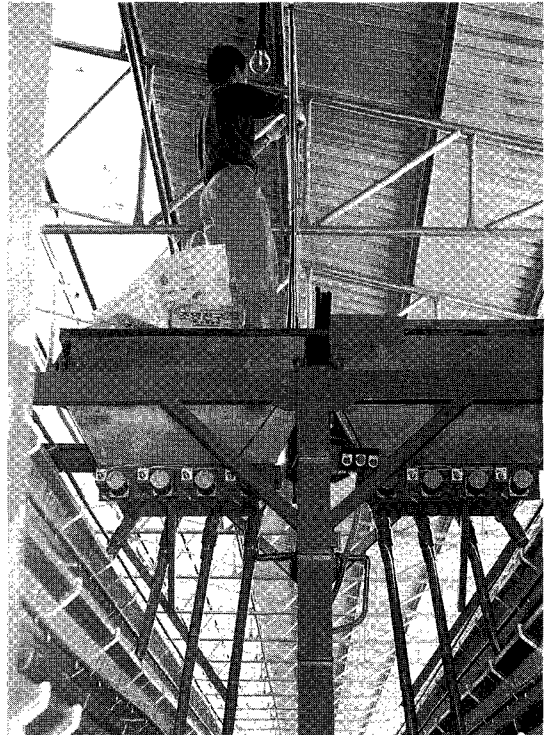
외환위기가 채란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보다 시설자동화 등의 사육규모 증가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올 한해는 유통구조 개선 등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이

상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시설자 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외환리스를 사용한 농가들은 국내 원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가 두배 가까이 뛰어오름에 따라 경기불황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설투자를 계획했던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대부분 계획을 취소하였고 더욱이 외국 기자재는

주문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자재업체들의 실상을 알아보고 사



△ IMF 이후 경기침체로 외국기자재의 주문이 현격히 감소되었으며, 당초 계획했던 계사신설을 포기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가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돌파구는 없는지 점검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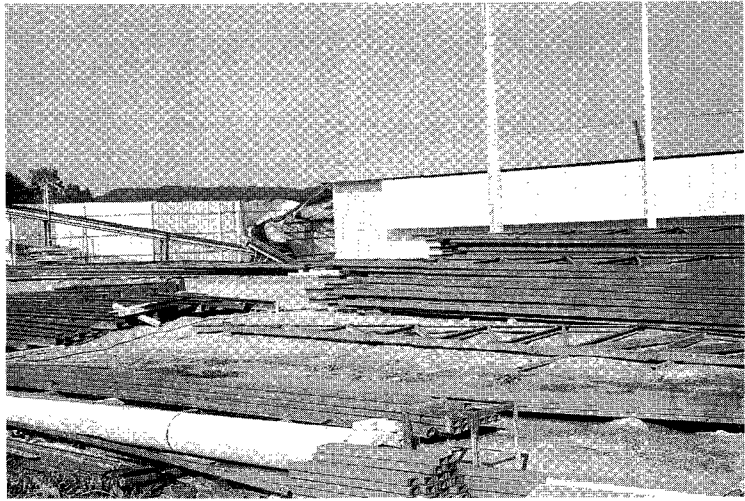
1. 기자재 업계 실상

국내의 모든 양계 기자재 업체들이 양계산업의 침체와 함께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환율인상으로 외국 기자재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수입기자재 보다는 정도가 덜 하지만 국내 기자재 업체들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원인은 높아만 가는 생산비 상승과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난가 때문에 감히 투자를 생각하기가 힘들며 지난해 이전 처럼 자금을 대출받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자금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산과 외국산을 함께 취급하는 양계기자재 판매업체에 따르면 외산의 경우는 찾는 사양가들이 거의 없어 아예 수입자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에서도 수요가 꾸준했



△ 계사 신축을 위한 수입기자재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

던 니플도 70% 이상 주문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반면 수입기자재에 비하면 그나마 국산 기자재들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국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은 외산보다 가격면에서 1/3정도 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기위축이 결국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산으로 시설을 해주면서 중고자재를 겸업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 중고의 주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현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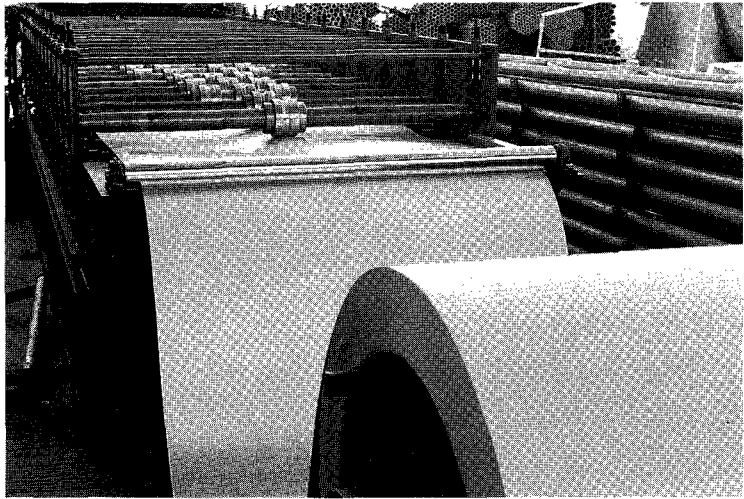
이 업체는 중고로 설치해줄 경우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

반 값에 설치할 수 있어 최근 경기와 맞물려 주문이 늘고 있으나 문제는 중고를 설치하려 해도 물건이 없어 설치를 못해주는 형편이고 설치를 해준다고 해도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금을 주지 않는 곳은 선불리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가 풀릴 경우 국산기자재를 찾는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계분벨트 및 집란벨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주문이 줄어 A/S위주로 농가를 순회하고 있는데 외환위기로 인해 수입기자재의 활동무대가 줄어든 만큼 기존에 설치된 외

국시설물에 계분벨트와 집란벨트를 규격별로 충분히 대체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도 연구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노화되어가는 외국기자재들을 국산화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이 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 경기침체 이후 일부 국산제품(계분벨트 등)들이 품질 우수성과 가격경쟁을 내세워 외국제품과 맞서고 있다.

2. 수입기자재 업체들의 어려움

'90년 이후 국내시장을 장악하면서 자동화를 주도해오던 외국기자재 수입업체들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수요감소로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외국케이지를 도입할 계획에 있던 농가들이 대부분 계획을 취소하고 나섰으며 이미 신설한 농가들도 국내 경기악화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등 진퇴양란에 빠진 상태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수입기자재 수입업체들은 현재의 경기를 관망하면서 기존에 설치한 자재들에 대해 A/S만을 주력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대부분의 외국 케이지 및

자재들은 최신에 도입된 것이고 A/S계약기간이 2~3년 정도이기 때문에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게 그들의 의견이다. 또한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시설한지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사양가의 실수로 기기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A/S라 해도 돈벌이가 되지 않는 간단한 부품교체가 고작이다. 그러나 센서, 환기기구, 모터 등은 고장이 날 경우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항상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하지만 농가들의 입장에서 불경기가 계속될 경우 업체의 업무중단으로 공급이 마

비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로 교체해 주는 부품들중 간단한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으며 고가의 부속품들은 1,400원대의 환율을 적용하여 교체해주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엔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영향이 국내에 또다시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수입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외국 본사에서도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리스 연장 등 구제책을 국내 수입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으나 기대 만큼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다는게 수입업체들의 반응이다.

3. 농가들의 걱정

이미 외국 기자재를 도입한 농가들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대리점을 통해 A/S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부품값이 비싸 이제는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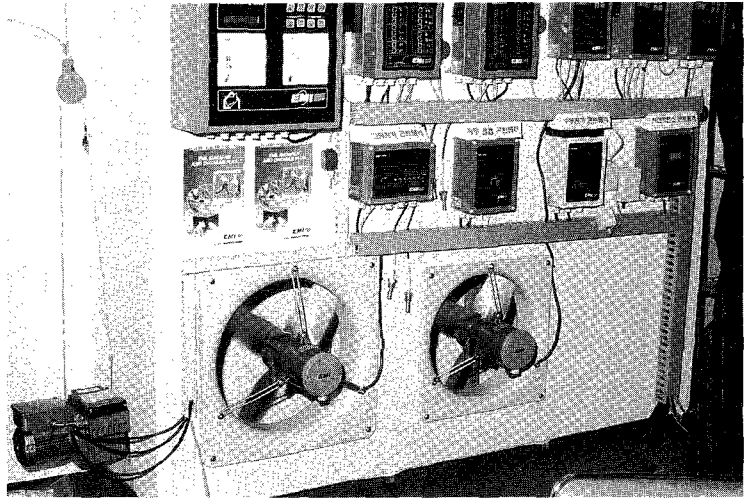
즉, 계분벨트나 집란벨트 등은 규격에 맞게 주문할 경우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계사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제어기기는 제작사에서 직접 구입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내 상품이 아직도 외국 기자재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만의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 생산성에 큰 부담을 갖게 된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리스를 사용해 외국기자재를 설치한 채란 농가의 경우 계란 개당 생산비를 약 85원대로 계산하고 있다.

리스에 대한 부담이 15원을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농장에서의 가장 큰 어



△ 국내 기자재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자재 못지 않은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려움은 물론 자금이지만 설치할 때 자주 고장나는 소모품들을 미리 여분으로 비치해둔 것이 큰 위안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앞으로의 자재 공급에 대해 걱정을 앞세웠다.

4. 향후 전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양계업 시설 현황을 보면 계사 신축은 90%가 감소한 상태이고 내부 기자재(케이지 등)는 70%가 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모품(계분벨트 등)은 50% 정도가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입기자재도 수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 탈출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IMF를 졸업하여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외국 기자재가 국내시장에 보급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외국 기자재의 성능에 버금가는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기르는 것이 국내 기자재보급 업체들의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몇 개 국내업체에서 외국기자재에 국내부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력하였고 이를 원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양계**